

■ 주제강연 3

강구섭(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적 과제와 방향

I. 서론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던 북한과, 그러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적극 동의하였던 남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1년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련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대결과 반목을 벗어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오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 바깥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냉전을 이제는 종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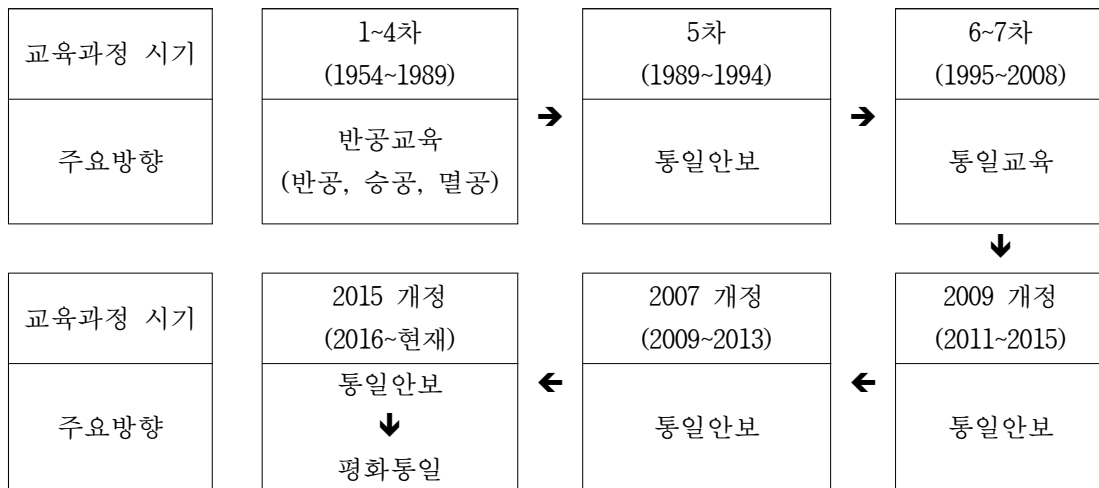
이처럼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의 수행을 요구한다. 급반전을 이룬 현재의 상황을 일회성 사건 수준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교육 분야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한만길 외, 2000). 실제로 통일인식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일교육을 비롯해 교육 분야의 각종 교류, 더 나아가 각종 정책연구에 이르기 까지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 연구 활동들은 남북한 관계, 국제 정세 등의 시대적 영향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 추진된 다양한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쟁점을 살펴보고, 평화와 통일 관점에서 교육 분야에 다뤄야 할 과제와 그를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평화 통일 대비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

1. 통일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70여 년간 지속된 남북한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숙원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분단,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교육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1950

년대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정규학교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분단, 통일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통일 북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이러한 분단, 통일 관련 교육은 시대마다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1980년대까지의 멸공교육, 반공교육, 1990년대 후반까지의 통일안보교육, 2000년대 초반 이후의 통일교육, 최근의 평화 통일교육 등 시대적 환경, 남북한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박찬석, 2006: 161). 이를 통해 각 시대적 상황에서 요구되었던 통일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다루졌다.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통일,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제고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남북관계의 특성,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등 시대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가운데 교육이 이뤄지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 함양, 필요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였다(한만길 외, 2000: 41).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정부의 방향, 남북관계, 국내외의 상황 특성에 따라 관련 교육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남북한 간의 관계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주요한 강조점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현장에서는 어떠한 수준과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인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져왔다(조정아, 2007). 이에 사회 환경,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통일인식 함양이라는 기본 목적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강구섭 외, 2014).



[그림 1] 교육과정 시기별 통일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시행된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적절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내용과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따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통일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나 교사에 의해 통일교육이 실행될 경우,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통일교육이 활발히 이뤄진다(강구섭 외, 2014: 99). 반면, 통일교육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나 교사를 통해 교육이 이뤄질 경우, 교과 내용을 형식적으로 다루거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등 수동적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통일교육이 이뤄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교육을 실행하는 지역적 상황의 특성도 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장순 외, 2017). 즉, 통일 분단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 경우에는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리적 심리적으로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심의 결여 혹은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에 서와는 다른 수준에서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이 그것이 이뤄지는 학교, 교사, 지역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인식의 함양이라는 목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통일사회의 예비적 경험으로서 탈북학생 교육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2000년대 전후부터 탈북학생 교육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남한에 입국하여 사회 및 학교에서 생활하는 탈북학생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2,600여명의 탈북학생이 남한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교육부, 2017). 남북한이 공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교육,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교사,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북한교육, 북한청소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남한에 입국하여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은, ‘탈북’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북한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통일 사회의 학교 모습을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먼저 온 미래’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윤인진, 2009: 63). 이에 따라 교육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 학생의 공존 상황은 통일, 북한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연구자에게 통일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실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체 학생의 규모와 비교할 때는 탈북학생의 규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10% 가량에 이르고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학생과의 만남은 통일, 분단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강구섭, 2018).

〈표 1〉 남한입국 탈북청소년 현황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북한	제3국	북한	제3국	북한	제3국		
1,027명(40.5%)		726명(28.6%)		785명(30%)		226명 (8.1%)	2,764 (100%)
361	666	332	394	408	377		
2,538(93.4%)							

출처: 교육부(2017), 탈북학생 교육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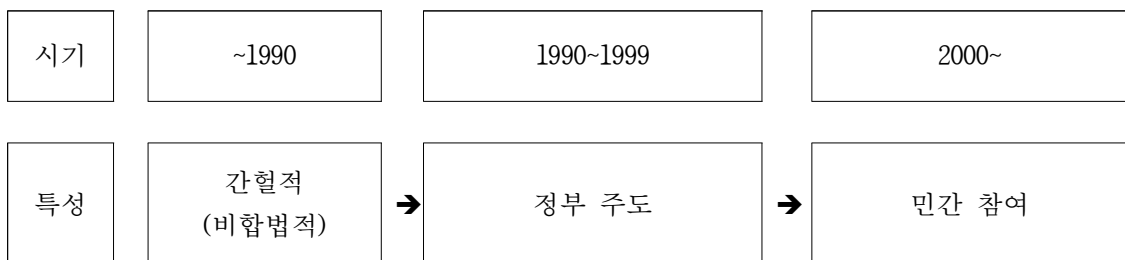
한편,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은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위험 상황을 동반하고 있는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정서적 충격, 탈북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업결손, 이전에 생활하던 곳과는 다른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충격, 남한사회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많은 문제들이 탈북학생의 남한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구섭 외, 2015). 특히 2000년대 이후 부터는 부모 가운데 한쪽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남한에 입국한 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2011년 경, 남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탈북학생의 36% 가량을 차지하던 제3국 탈북학생의 비율이 2015년에는 과반을 넘었다. 이러한 제3국 배경 탈북학생들은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다가 청소년기에 남한에 입국한 경우가 많아 남한 입국 이후 언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구섭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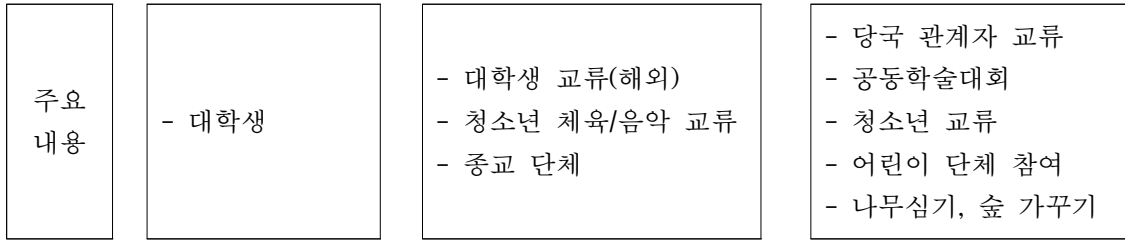
남한과는 이질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치, 지식, 경험을 습득하고 생활하는 과정은 통일 준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후 북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학생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원만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직간접 경험으로서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

남북한 교육 분야의 교류는 교류의 대상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대체로 1990년대 초까지는 개인 단위의 간헐적인 접촉이 추진되었고, 그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정부 주도로 교육 분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 체육 선수단의 교환경기, 북한선수단의 남한 방문, 청소년 예술단의 남한 방문 등의 행사가 추진되었다(김창환 외, 2013: 29). 2000년대 이후에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어린이단체(어깨동무, 청소년 적십자)가 참여하여 북한 어린이들과 나무심기, 숲 가꾸기와 같은 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북한 방문 뿐 아니라 북한청소년(체육선수단)이 남한에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이 북측의 남측 방문 형식의 교류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체육선수단이나 예술분야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 분야의 협력 이외에 교수, 연구자의 북한 관계자 접촉, 공동학술행사 등도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제고하였고 교육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만길 외, 2017: 7~13).

남북한 교육 분야의 직접적인 교류는 분단, 통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던 양측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교육 분야의 교사, 학생, 연구자에게 북한 측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북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활용되었다(김창환 외, 2013: 28). 이처럼 남북한의 직접적 교류는 참여의 기회, 인원 등의 양적 측면에서는 제한되었지만 상호간 직접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하였다(한만길 외, 2017: 152). 그렇지만 양측의 관계가 원활한 상황에서만 교류가 이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지속성 유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교육 분야의 다른 영역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 교육 분야 남북한 교류 현황 개요

4. 교육 분야 통합 관련 연구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을 비롯한 교육 분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 부터 동구권 붕괴, 구소련의 체제 전환, 독일 통일 등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1994년 북한의 당시 최고권력자가 사망하면서 북한 체제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통합방안 수립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경향을 개관하면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체로 북한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교육통합 방안 수립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교육통합을 위한 사전 대비 측면에서 필요한 통일 전 교육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교육 분야 지원 방안과 교육통합을 위한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가 주로 추진되었다. 2012년, 북한의 권력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관련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통합 방안 수립 연구,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총론 개발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강구섭, 2015b).

교육통합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교육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동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통합 방안 연구와 함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교육 및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 교과서나 교육 관련 북한 발간물 등 북한 원전을 활용하거나 교육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교육 체제와 특성, 학생의 양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였다.

대체로 통일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기존의 남북한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통합 추진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통합 추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주요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북한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통계자료를 비롯한 관련자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문헌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 분야 세부 영역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 각 영역별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남북한 교육통합 관련 주요 연구 현황

영역	년도	주제
교육통합	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연구
	199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I) -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1992	독일의 교육통합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II) -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새 모형
	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1996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
	1997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 통일이전 민족통합의 과제
	2006	북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2007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지원 방안 연구
	2008	남북한 교육 체제 변화와 통합 전망
	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2015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 교육 과정 개발 방향
2016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교사 재교육 방안	
북한교육	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1991	북한 조선역사 교과서 내용 분석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1998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
	2001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연구
	2003	북한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Ⅲ.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1.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

가. 남한사회,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조성

평화·통일의 측면에서 교육 분야는 1차적으로 남한사회, 더 나아가 한반도 내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 문제에 관한 심각한 이해의 차이는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남북한 통일문제 뿐 아니라 경제, 복지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교육 분야가 담당

해야 한다. 학교 내 정규 교육 뿐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통일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상이한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역량이 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방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는 방향으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

나.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구축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 분야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활동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거시적 방향에 따라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에 필요한 역량 및 경험 축적의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가 병행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내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과제가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통일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게도 큰 도전과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사회가 통일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역할을 교육 분야가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체제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각 분야에서 통합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현황, 북한에 대한 지식, 미래의 전망 등 전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통일을 위한 내적 역량 강화, 각 분야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역량의 강화를 통해 남북한이 체제의 통합을 넘어 심리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교육 통합 준비를 위한 기반 구축

평화 통일 관점에서 추진되는 교육 분야의 활동은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교육 분야 통합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교육 분야의 활동은 현재 그것이 가지고 있는 1차적 목표를 넘어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체제의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험 및 역량의 축적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형화된 체제, 제도로써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과 같은 비정형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한만길 외, 2012). 즉, 제도 뿐 아니라 제도와 연관된 개인의 인식, 태도,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평화·

통일 관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활동은 남한 및 북한의 교육, 21세기 변화 상황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남북한 교육 통합의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 과정이라는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남과 북의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강구섭, 2012: 65).

2.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분야의 과제

가.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해소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분야의 1차적 과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 내지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를 넘어 남남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1.9%로 나타났다,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6.2%,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2.6%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39% 가량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파악하는 비율은 42.3%,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40%로 나타나 성인 대상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있었던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련의 사건 후 이러한 적대감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긍정적인 인식 또한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표 4> 참조).

<표 3>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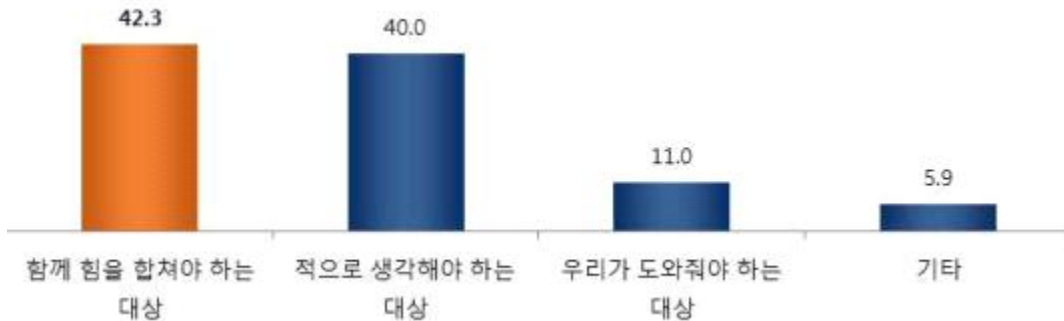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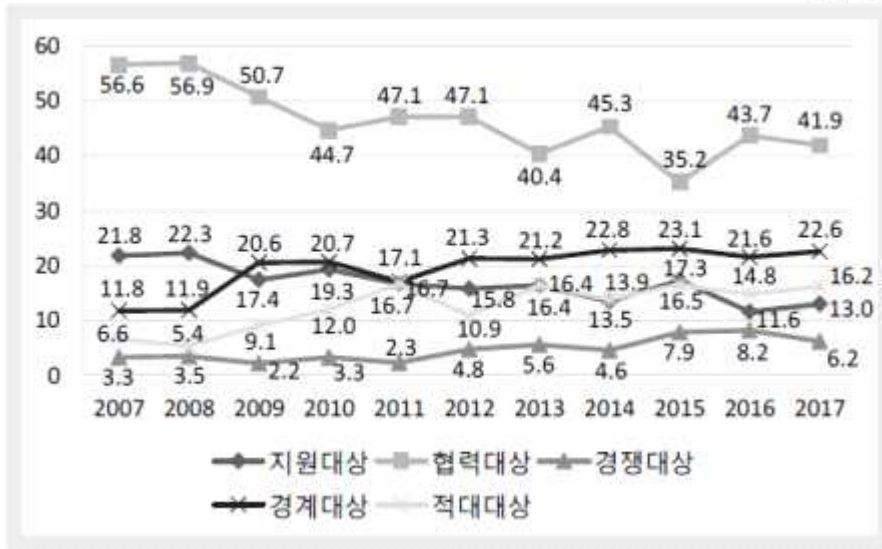
출처: 정근식 외(2018), 2017 통일의식조사, p. 68.

<표 4> 초중고등학생의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출처: 통일부(2018), 2017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p. 16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분야의 노력이 요구된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

(단위: %)



치들은 현대화된 정상국가를 향한 북한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제적 요소의 반영, 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변화상황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최봉대, 2013: 83).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북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수십 년에 걸쳐 남북한 사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이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남북한의 동질적 요소에 대한 강조보다 이질적 특성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이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정치, 언어, 생활 등의 측면에서 남북한이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5> 참조).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에 여러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굳이 남북한 간에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의 목적은 이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통합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차이에 대한 인

식이 이로 인한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

〈표 5〉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현황

	남한		북한		격차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선거방식	92.4%	91.8%(1)	94.2%	97.0%(1)	1.8%p	5.2%p
언어사용	81.3%	82.5%(3)	93.5%	90.9%(3)	12.2%p	8.4%p
생활풍습	77.8%	77.1%(4)	89.1%	96.2%(2)	11.3%p	19.1%p
가족중시	64.6%	57.3%(6)	90.6% (가치관)	86.4%(4)	26%p	29.1%p
사회복지	94.9%	90.5%(2)	96.4% (생활수준)	80.3%(5)	1.5%p	10.2%p
돈에 대한 중시	-	62.2%(5)	-	81.1%(6)	-	18.9%p
역사인식	-	-	94.9%	-	-	-
평균	82.2%	76.9%	93.1%	88.6%	10.9%p	11.7%p

출처: 정근식 외(2018), 2017 통일의식조사, p. 96.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과 동일시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표출함에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출신배경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춘 채 생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60% 가량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18% 가량만 자신의 출신배경을 알리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강구섭 외, 2015: 56). 자신의 출신배경이 알려질 경우 차별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통일 측면에서 교육분야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및 이해 증진을 통해 미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한 기본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분단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6〉 출신배경 공개 현황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39.22	40.00	20.78

출처: 강구섭 외(2015),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I), p. 56

〈표 7〉 탈북청소년의 출신배경 공개 의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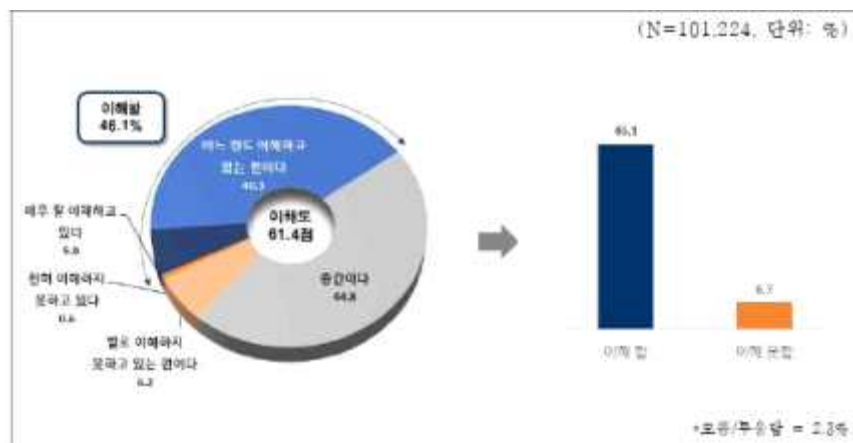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겠습니까?				
	알리겠다	알리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재학생	71	225	89	385
	18.44	58.44	23.12	100.00%

출처: 강구섭(2015),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VI). p. 56

나. 통일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과제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관계의 극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련 교육, 학습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 및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2%의 학생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통일부, 2017: 85). 반면, 통일에 대한 이해 수준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6% 가량만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 가량은 어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초중고등학생의 통일에 대한 이해 수준 조사 결과



출처: 통일부(2018), 2017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p. 97

한편, 현재 이뤄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비롯해 통일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측면에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원인 및 피해 등 통일과 관련된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통일의 방식, 통일의 미래상 등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매우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강구섭 외, 2014: 129). 이에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인식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에서 분단문제의 원인, 통일의 필요성 등의 당위적인 내용을 넘어 통일의 실행방안, 통일 미래상 등과 같은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로서 통일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주제, 각 개인의 특성이나 관심에 기반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이라는 과제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안으로서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교육 분야 통합 대비

교육 분야의 과제로 교육 분야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 분야의 통합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통합 과제는 대체로 체제 측면과 비체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체제 측면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 영역을 비롯한 전체 교육 분야의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에 이르는 학제, 교육과정 및 교사,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이를 총괄하는 교육행정체제 등의 전체 체제 측면에서 요구되는 체제 통합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특성 및 통합 과제, 통일 관련 쟁점 및 실행 방안 등 통일과 관련하여 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교육, 학교, 교육과정, 청소년, 교사 등 북한 교육의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하여 이뤄져야 한다.

〈표 9〉 체제 측면의 교육 통합 과제 개요

영역	주요과제	비고(북한 교육의 특성)
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 개편 - 학제 개편 - 직업교육체제 도입 - 학기 운영 체제 개선 - 특수목적학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전 의무 교육 - 5.3.3. 단선형 학제 - 중등단계 직업교육 계열 없음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편제 재편 - 수업방법 - 교수법 - 평가방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한 교육과정, 교과서 - 정치사상 교육 강조 - 결과 중심 교수방법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교원 재임용 - 북한교원 재교육 - 남북한 교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혁명가 - 정치사상성 중요
교육행정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체제의 개편 - 전체 체제의 성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집중, 하향식 - 일반 행정, 교육행정의 통합

출처: 한만길 외(2012), pp. 61~105. 참조

비체제 측면에서는 제도적 체제 측면을 넘어 새로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인식, 이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을 의미하는 체제 측면의 과제 또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치 및 인식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체제 측면의 과제는 체제 측면보다 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제도적 변화가 의도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태도, 행동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며 북한 교육 영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표 10> 비체제 측면의 교육 통합 과제 개요

영역	주요과제	비교(북한 교육의 특성)
교육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 수정 - 창의성 지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적 인간양성 - 과정 중심 교육
교육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적 분위기 - 위계 구조의 개편 - 교육에 대한 이해 - 학부모, 교사의 역할 - 전체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주의적 분위기 - 위계적 분위기 - 암기식, 주입식 - 교자 중심 - 학교 중심

한만길 외(2012), pp. 71~118. 참조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전체 교육 기관은 학령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력이라는 형태로 인정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음 교육 단계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교육 기관은 중단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통합은 전환기 상황을 비롯한

전체 상황에서 학교를 비롯한 전체 교육체제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제 전환 과제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강구섭, 2017: 65).

IV. 결론

통일 전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인식제고 및 역량 함양을 통해 체제통합을 넘어 내적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교육 분야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측면에서 교육 분야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의성 있는 내용이 통일교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강구섭 외, 2014).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 이슈, 주제를 토대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가 시의 적절하게 개발·제공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규교과 교육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체험 형식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내용 측면 뿐 아니라 형식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따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회 및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체제 통합 준비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경험이 교육 분야의 통일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교육체제 통합 방안 수립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교육 체제 통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경험과 체제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사업의 결과들이 사업 자체의 목적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에서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와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통합 준비를 위한 각종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북한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교육체제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교육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육 분야의 접촉은 양적 측면에서 제한된 기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교육 영역이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의 활성화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상대방의 현 수준,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교류·협력이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넘어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종 문화 체육 행사 참여 등의 단회적 행사 뿐 아니라 학생 수학여행, 교사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이 보다 정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대상자 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구성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체제 통합 과정이 기존의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동서독 통일 후 추진된 교육체제 통합 과정은 구서독의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 과정은 남북한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 체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iedel, 1999). 즉, 교육 분야의 통합 준비는 통일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한반도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구섭(2018), 남북관계 전환기 탈북청소년 교육의 과제, 월간교육, 2018 9~10월호, 월간교육
- 강구섭(2017),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연구,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비교교육학회
- 강구섭(2016), 한국 통일교육의 현황과 독일 사례의 시사점, 2016 통일부 한독자문회의 자료집, 통일부
- 강구섭(2015),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강구섭(2015b),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미시적 연구, 통일연구원(비공개)
- 강구섭 외(2014),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통일부
- 강구섭(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비교교육학회
- 교육부(2017), 2017 탈북학생 교육 통계, 교육부
- 김정원 외(2016), 탈북학생 교육 백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한반도평화연구원
- 문장순 외(2017), 경북의 통일준비 기본 구상 최종보고서, 경북통일교육센터
- 박찬석(2006),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한국학술정보
- 윤인진(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책과제, 연구자료 RRM 2009-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정근식 외(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조정아(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통일연구원
- 최봉대(2013),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 통일부(2018). 2017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통일부
- 한만길 외(2017), 통일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학사
- 한만길 외(2012),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Riedel, J.(1999): Systemwechsel und Transformationsprozess in Ostdeutschland: Erfahrungen und Neuorientierung der Förderpolitik. In: Waschkuhn, A. (Hrsg.): Politik in Ostdeutschland, München.